

도서특성화사업 전문성 강화 교육 사업의 이해 및 단계별 학습

김 재 호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살기좋은섬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

- 살기좋은섬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은
 - 인천광역시가 2019년 작성한 ‘살기좋은섬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
도서특성화사업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2020년 도서특성화사업 운영방안’,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자료
- 정부의 도서특성화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인천만의 도서특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해당 마을에서 지향하는 사업을 실현함
또한, 주민 자립 역량 및 생활 여건 개선, 도서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지역문제 완화,
주민일자리 창출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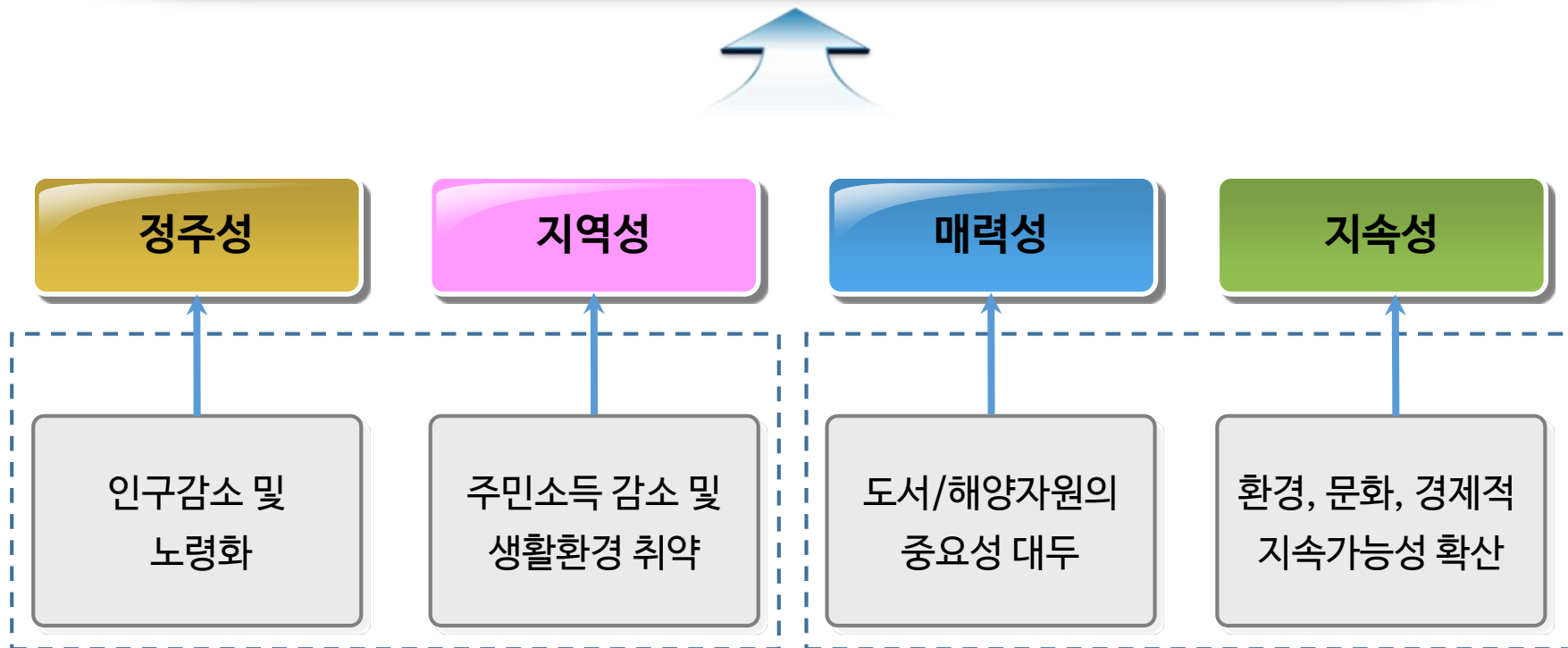
I

도서개발사업의 중요성 및 성공요인

III. 인천 도서지역의 현황

1. 왜 도서 개발인가

도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



문제점

- ✓ 유사한 모습의 어촌마을
 - 유사한 자연자원, 개발환경 등
- ✓ 법/제도적 한계
 -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 ✓ 지역내 사업추진주체 미약
 - 지역민 노령화, 정주인구 감소 등
- ✓ 도서별 추진사업의 한계
 - 사업비, 전문성 등 부족



도서개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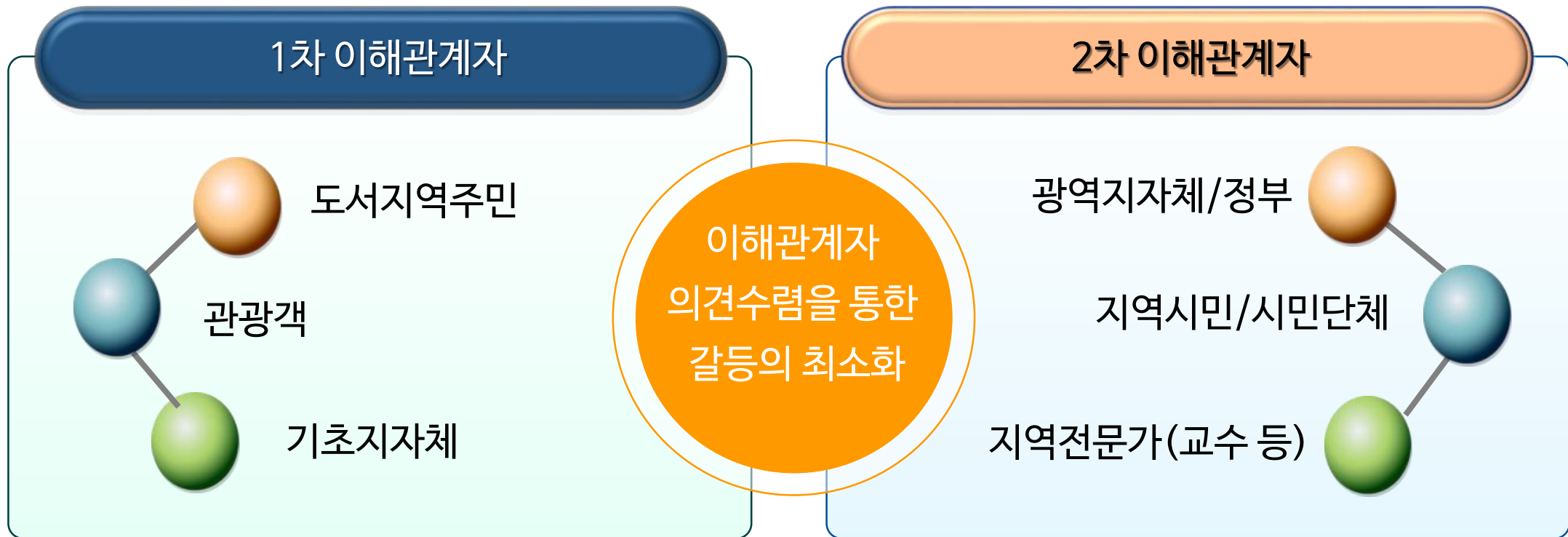
도서별 컨셉의 차별성 강화
도서별 특화 콘텐츠 개발/활용

도서별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도서별 연계협력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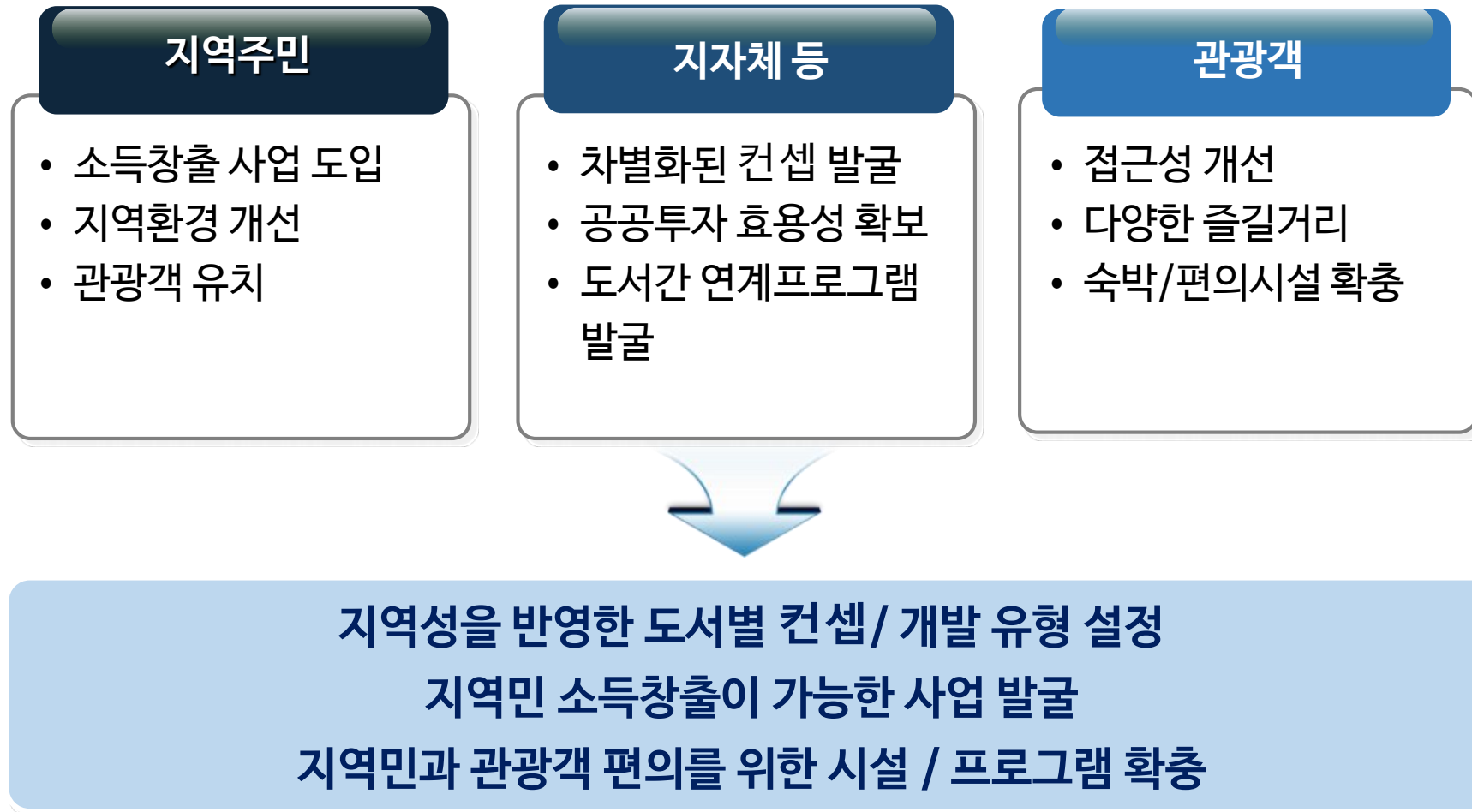
주민참여 및 지역역량 강화 방안
주민주도, 마을주도 사업 적극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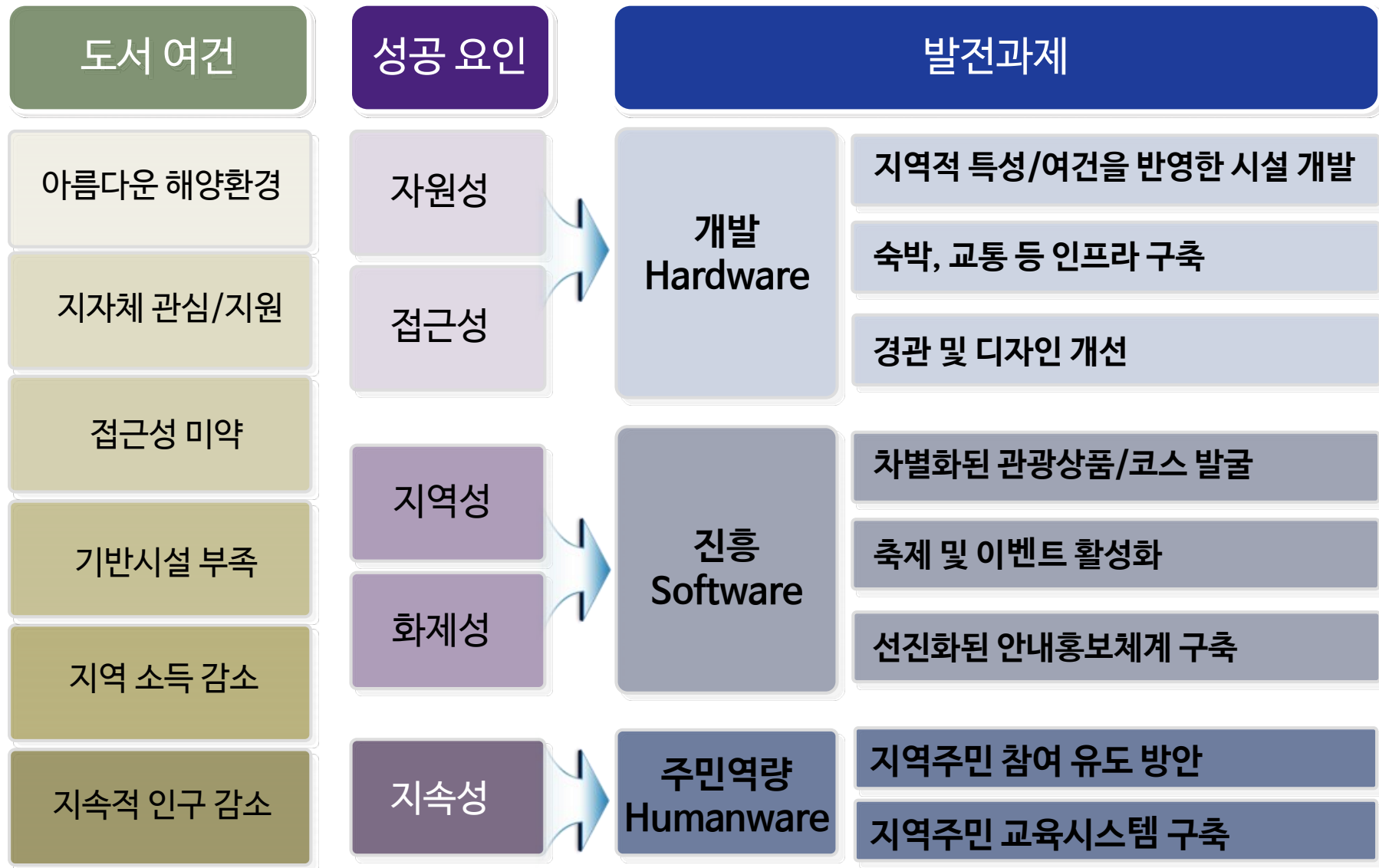
현실적인 투자비 마련, 도서간 균형발전 도모
행안부 지침과 예산에 맞는 사업 구상

✓ 이해관계자 범위



✓ 이해관계자 의견





2. 섬 개발의 성공 요건

관광자원형

- 한국 우도
- 몰디브
- 일본 야쿠시마

문화유적형

- 한국 완도
- 이탈리아 이츠키아
- 그리스 델로스

농업자원형

- 한국 볼음도
- 일본 오오시마
- 뉴질랜드 와이헤케

수산자원형

- 한국 울릉도
- 베트남 푸국
- 홍콩 라마

체험관광형

- 한국 외도, 증도
- 일본 카시마
- 일본 나오시마

✓ 하츠시마

개발 특징

- 체계적인 지역협의체 운영(주민참여)
(지자체 지원 없이 추진)
- 지역활성화를 위한 자치조례 제정
-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한 민자 유치
(선박-관광사업권 연계, 건물/토지 임대)



개발 효과

- 소득창출에 따른 인구감소 최소화
- 민자유치를 통한 외부 정주인구 확보
- 관광객 증가로 신규어항 등 인프라 확충
- 지역주민 생활 / 문화환경 개선



✓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활성화, 하츠시마(일본)



[하츠시마 Island Resort 전경]



[사루토비]

[등대자료 전시관]

[해양자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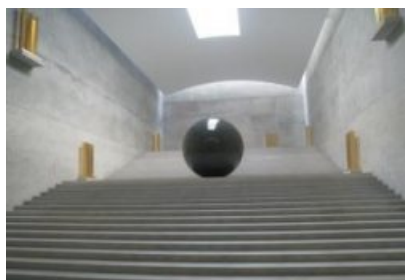
✓ 나오시마

개발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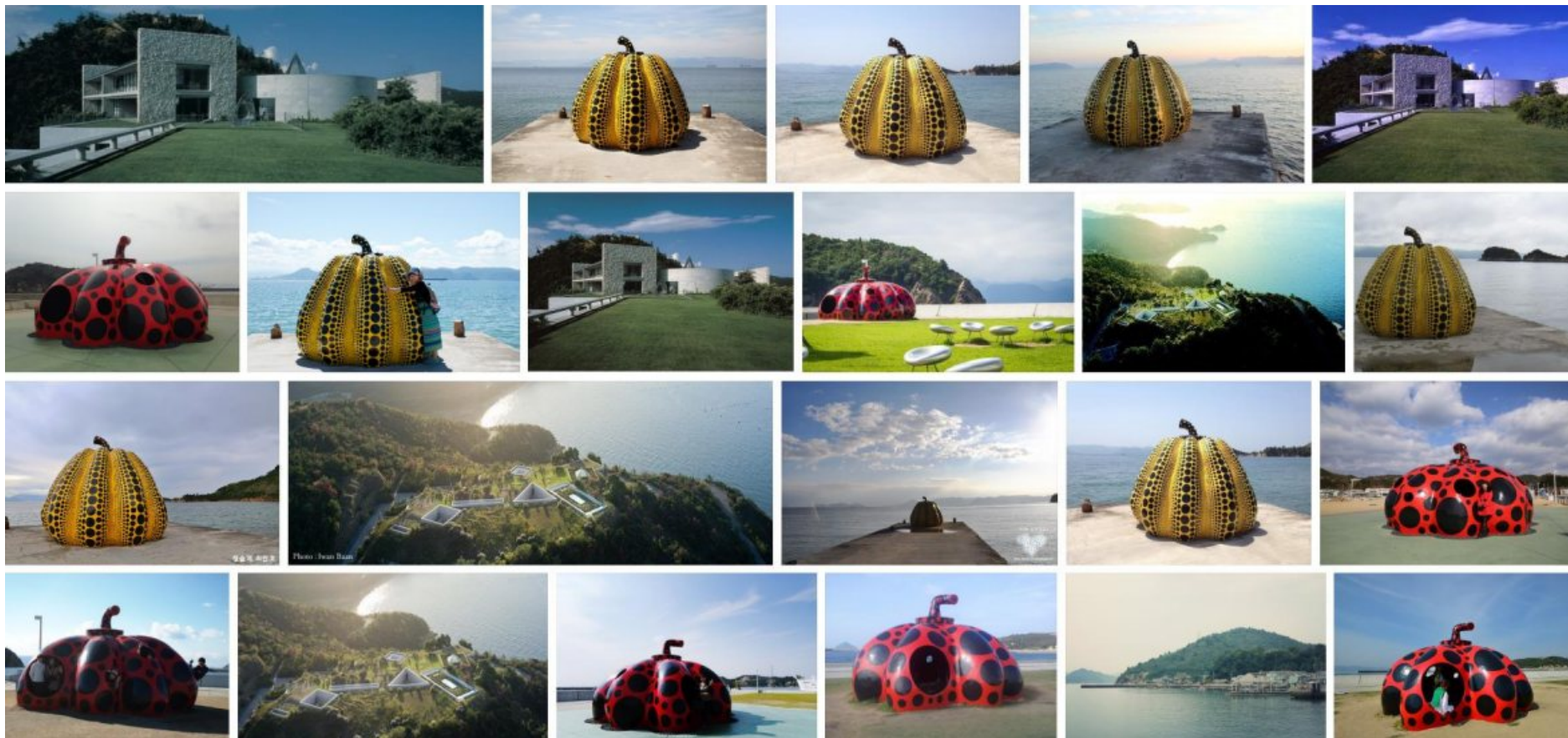
- 지역리더(읍장)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 도서이미지 창출을 위한 노력
 - 집프로젝트, 전문가가 공공시설 총괄
- 민간기업(베네세 그룹)의 지속적 투자
세계적인 건축가/예술가 참여

개발 효과

-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지역활성화 도모
- 관광자원 잠재력 발굴 및 재창조
- 지역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 자연 + 문화예술 + 관광
- 관광객 증가 및 지역소득 증대



✓ 나오시마



✓ 남이섬



화장품 '설화수' 공병으로 나뭇잎을 만든
남이섬 선착장 나무

✓ 남이섬



[첫키스 다리]
- 2010년 삼성증권 사옥
이전 시 생긴 폐강화유리 재활용



[이슬정원]
- 약 3000여개의 소주병을 쌓아 만든 이슬정원
- 이슬이 가장 먼저 내리는 곳

✓ 남이섬

남이섬 재활용센터



✓ 남이섬

폐목재로 만든 표지판과 조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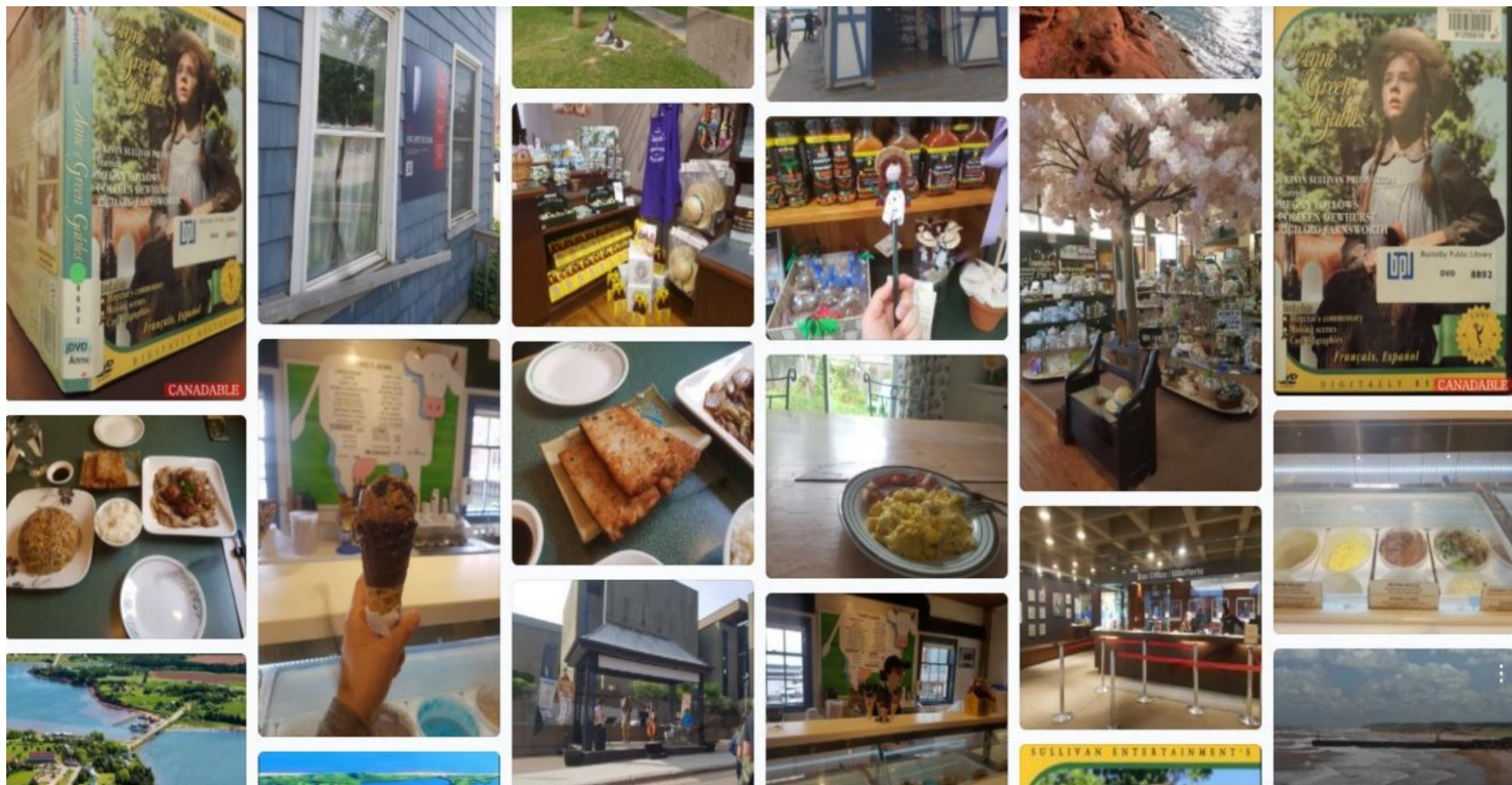




부라노
(이탈리아)



✓ 프린스 에드워드 섬(캐나다)



성공 요인

자원성 (지역의 고유자원 최대한 활용) → 델로스(그리스), 야쿠시마(일본), 삼소(덴마크) 등

지역성 (지역민이 만들어 가는 곳) → 하츠시마(일본), 와이헤케(뉴질랜드), 외도(한국) 등

화제성 (특색 있는 자원 발굴/시설도입, 스토리텔링화) → 나오시마(일본), 남이섬(한국), 보길도(한국) 등

지속성 (환경적응/문화접목 등 장기간에 걸쳐 형성) → 나오시마(일본), 남이섬(한국), 외도(한국) 등

접근성 (해상교통체계 개선) → 나오시마(일본), 하츠시마(일본), 외도(한국) 등

실패 요인

지역 리더의 부재로 지속성 저하 (일관성 있는 추진 어려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지역적 공감대 부족)



프로그램 중심보다는 시설 중심의 접근

단계적 개발계획의 부재

시설 운영에서 전문성 부재 (지역민 역량 미흡)



3. 인천 도서지역의 현황

자연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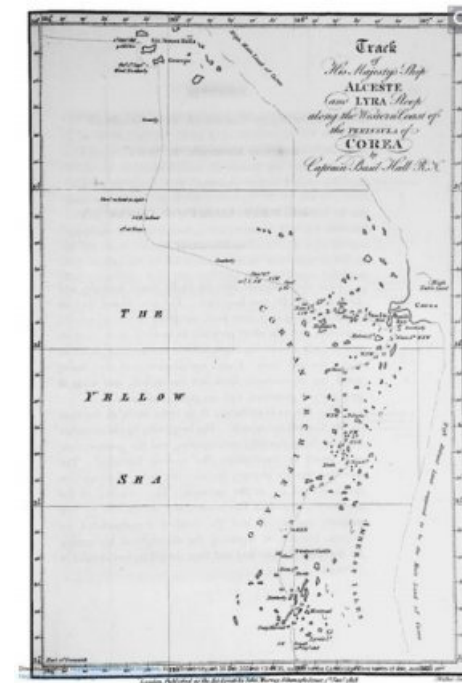
육지와 격리된 지리적 위치, 지질학적 특성,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자연생태환경 보유

- **땅보다바다가 넓은 해양 도서 지역**
- **리아스식 해안 발달로 아름다운 해안경관 형성**
 - 해침에 의해 도서 지역에 매우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 발달
- **독특한 자연경관 보존, 다양한 해양생태계 보고**
 - 천연기념물(백령도, 소청도) 등 각종 보호지역 지정
- **빠어난 절경 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가치 우수**
 - 백령도에는 10억년 전 퇴적암 분포 / 소청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 화석 흔적
 - 2019년 9월 백령권 지역(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인문 환경

수천년, 국제적으로 사람 · 문화 · 산업의 교류 중심지

- **역사적으로 사람, 문화, 상품이 왕래하던 교류의 중심지**
 -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선진문물을 교류하는 해상교통로 / 개항기에는 외국 선진문물을 들여오는 창구
 - 근대에는 수도권산업의 관문 / 현대는 동북아시아의 항만물류 중심 통로
- **심청이 설화와 거상 존재..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
 - ‘효녀 심청’이 빠진 인당수 위치를 두고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를 꼽기도 함
 - 심청이 설화는 이 수역에 거상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며
 - 중국과의 오랜 교류 역사를 반영
- **백령도와 10일간의 조선항해기**
 - 19세기 유럽 선박들이 동아시아로 몰려올 때도 주목
 - 1816년 영국 압허스트 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해로 측량을 위해 백령군도를 들림



지도 왼쪽 위 'Sir James Halls Groupe'로 표기된 곳이 백령군도

인문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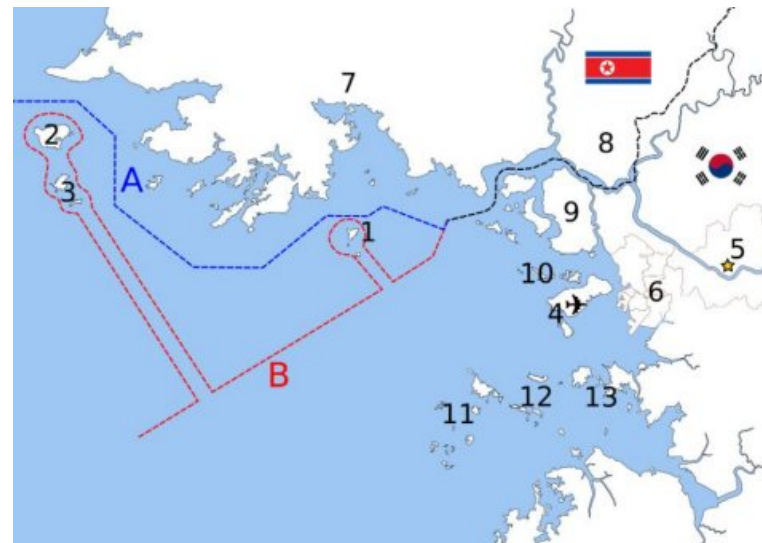
서해 최북단에 위치, 군사적 요충지이자 한반도의 화약고

• 서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

- 고려 때 몽고의 침입에 대항하는 군사적 요충지
- 조선시대 한양의 길목을 지키는 수문장
- 6.25 전쟁시 북한으로 진격하기 위한 교두보

• 남북한, 중국 간의 충돌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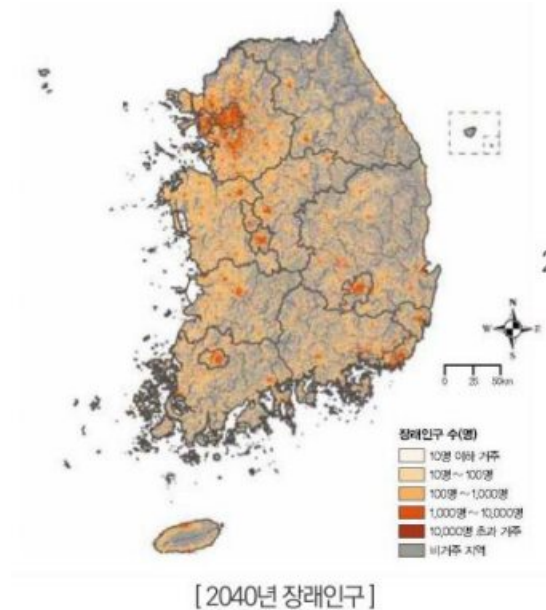
-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북한 초도 이남, 남한 덕적도 이북’ 수역
-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해 남북한과 중국의 중첩 수역
- 국제법상 논란과 관할권 충돌 위험 상존 지역
-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 지역: 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등
- 수년째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성행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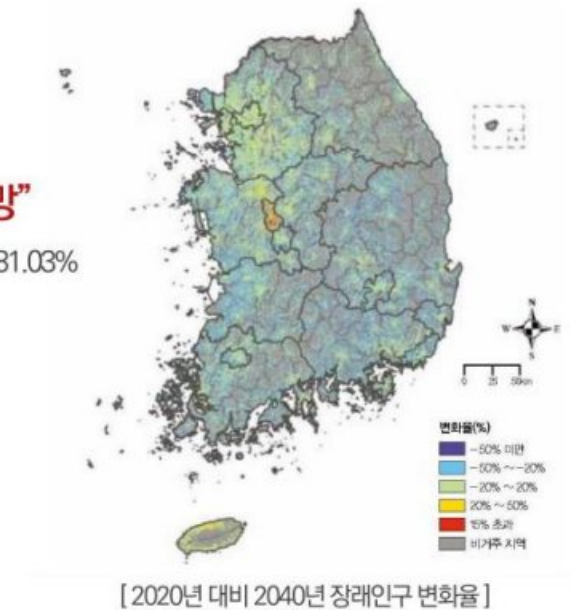
인문 환경

인구 소멸 위기

- 인구 지속적으로 감소
 - 웅진군민: 20,455명
65세 이상 5,485명
(고령비율 26,8%)
 - 서해5도 인구: 8,750명 (2020. 8. 31 기준)



“인구 과소화 전망”
2040년 인구 감소 예상 지역 8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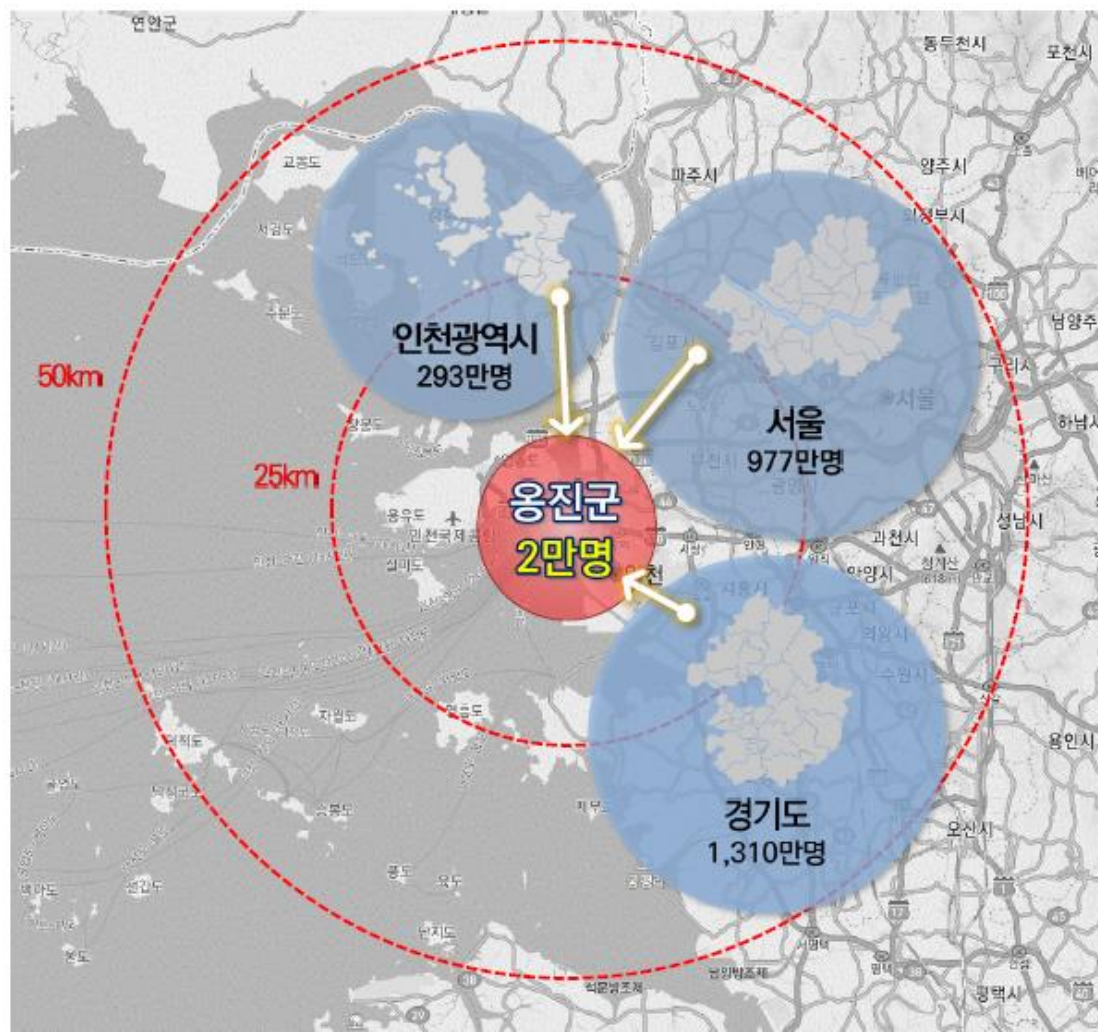
인문 환경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

- 2007~2015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실시
 - 대표적인 남북협력 성공 사례로 평가
- 최근 다수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 추진
 - 한강하구 공동조사 지원 사업,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지원,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기반 마련 사업 등
- 정부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주민문화센터 조성, 생태·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DMZ 평화의 길, 해양 및 수상레저 시설 조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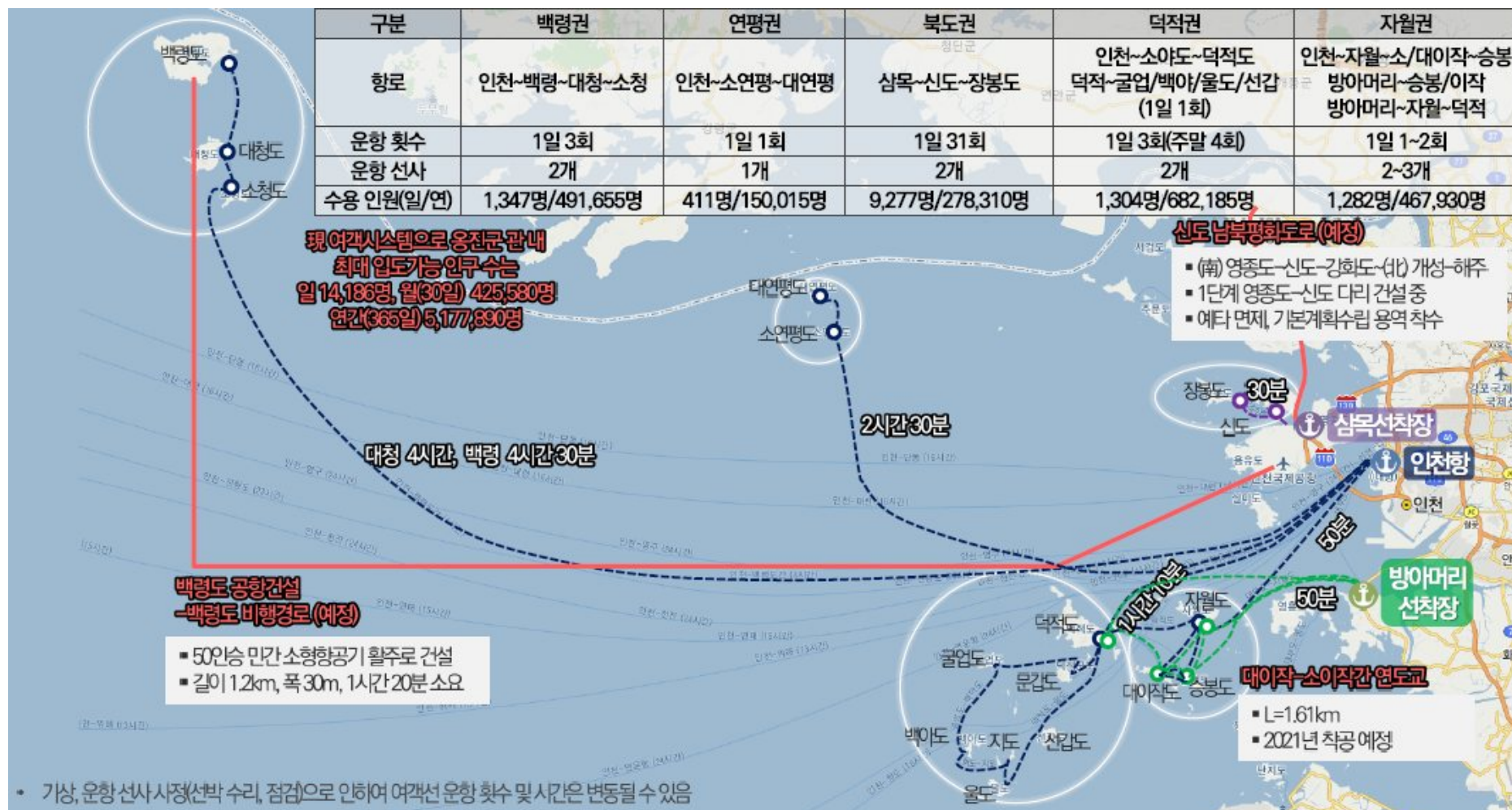


약 2,600만명의 배후시장 보유 (내국인 기준)



자료: 옹진군(2019)

선박 이용 접근 / 향후 남북평화도로 (영종도-신도간), 백령도 공항 건설에 따른 접근성 기대



- **잘 보존된 자연생태 환경이 핵심 콘텐츠**

- 섬 지역이자 접경지역을 개발이 덜 이루어져 자연생태 환경, 경관이 잘 유지
- 해식애, 해안사구, 식생 고유 생물자원(철새, 점박이 물범 등) 보존
- “원시적 경관” 선호하는 트래커, 백패커들에게 각광

- **안보자원, 인문자원 분포**

- 연평, 백령을 중심으로 안보자원 분포(접경지역의 군사시설 경관, 남북한간 분쟁을 인한 피해, 희생의 흔적들)
- 백령도의 종교유산, 문인 기형도(연평), 어업과 관련한 파시 문화, 일부 민속 보유 / **but 인문 콘텐츠는 많지 않은 편**

- **해안 지형 경관, 산지와 숲 있는 그대로의 관광 이용**

- 해안: 해안사수, 해식해 지형경관 감상, 탐방로 설치, 해수욕과 갯벌 생물 채집 낚시 이용
- 숲: 숲길, 산책길, 명상 및 치유 활동
- 일부 편의시설, 전망대, 보행교, 구름다리 등 설치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 노력 필요

- **체계적인 개발, 민간의 관광휴양시설 개발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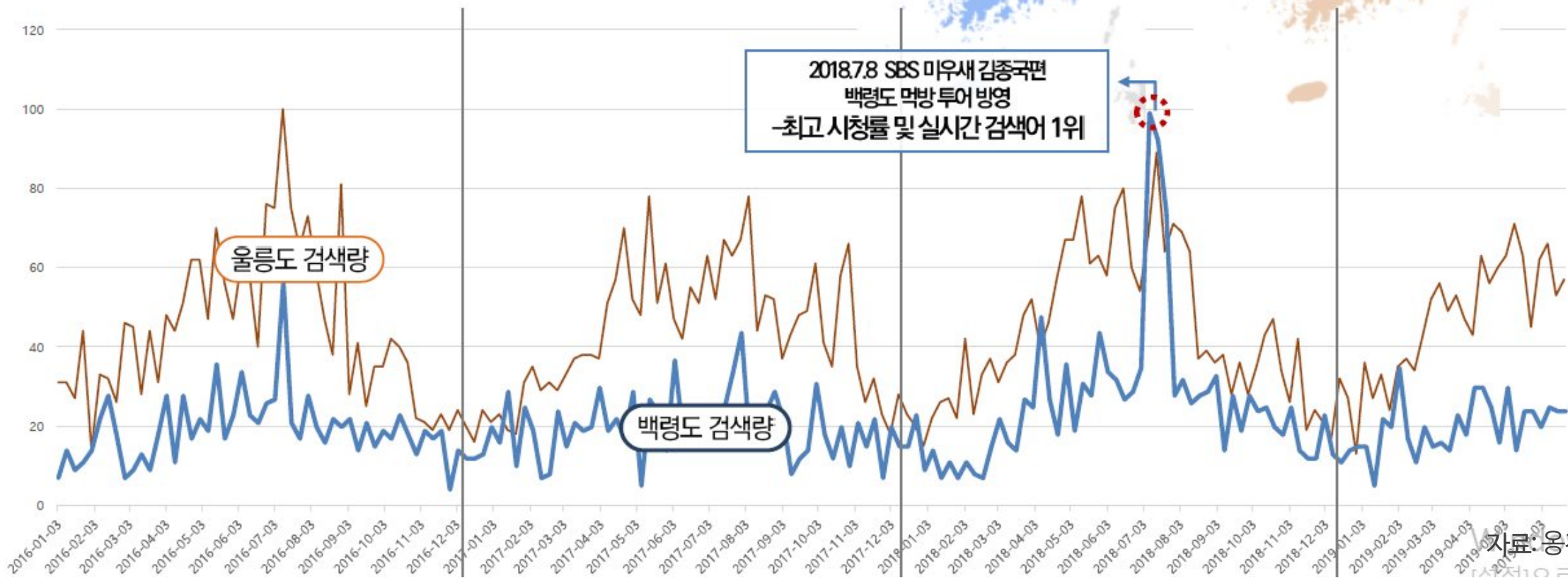
- 집객자원 및 시설 부족
- 민간 차원의 관광시설 개발 노력 미흡 (섬지역으로서 시설 조성 및 운영 어려움 기인)

[계절성 보유] 7월에만 반짝 관심 집중, 인천지역 주민들이 주로 찾는 곳

- 울릉도 : 4~11월의 관광시즌 내 검색량 집중
- 백령도 : 7월에만 검색량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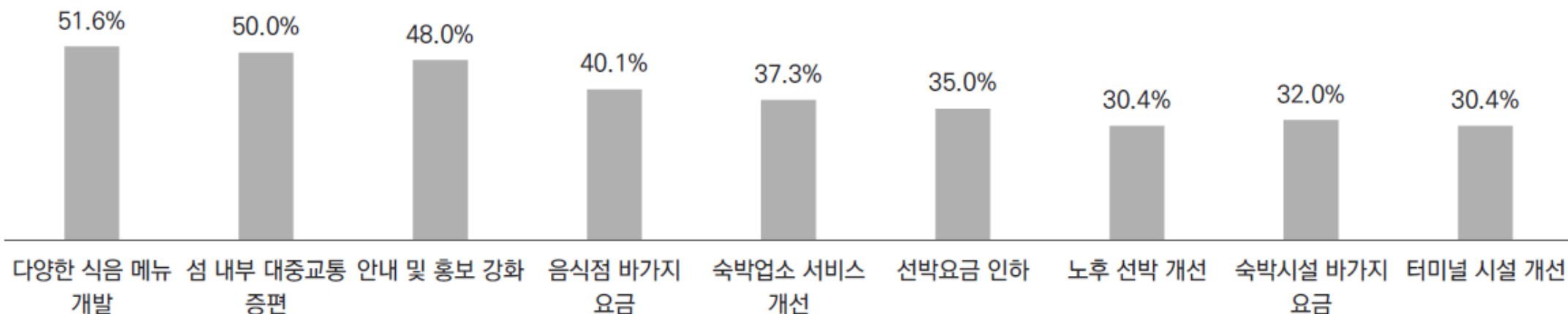
[백령도]
인천에서만 주로 검색

[울릉도]
경북을 중심으로 강원도,
부산, 울산, 대구에서
높은 검색량을 보임



[서비스 · 요금 · 교통 · 정보 미흡] 숙박과 식음서비스 · 요금 / 선박 및 섬 내부 교통 / 관광정보 제공 등 개선 필요

개선 필요성



숙박/식음

- 숙소상태가 좋지 않음
- 편의점, 마트 등 편의시설 부족하며, 가격이 비쌘
- 횃집들이 준비하게 늘어서 있지만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이며, 해산물보다 육지 음식이 더 많음

교통

- 뱃삐, 차량이용, 여행경비 등이 비쌘
- 렌터카샵이 별로 없고, 내비가 안되며, 버스 및 택시는 1~2대 운영
- 소연평도: 차량을 하루에 5대만 실을 수 있으므로 예약하기 어려움
- 배시간이 너무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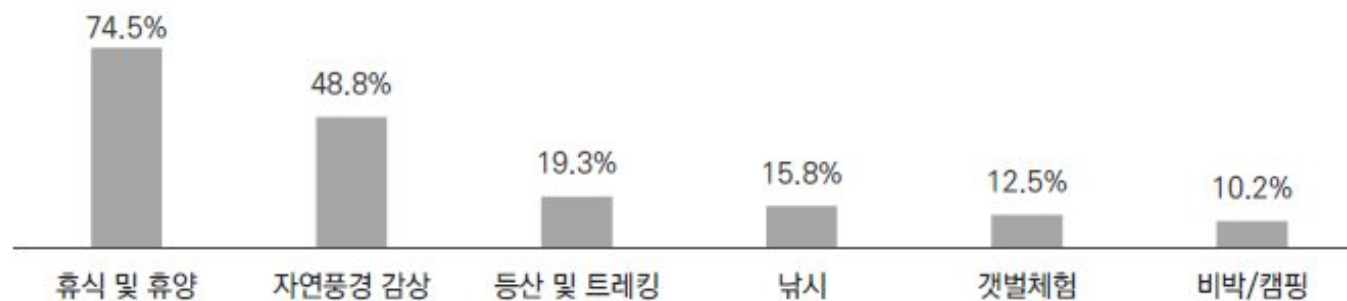
관광정보 안내 및 홍보

- 리플렛 및 지도를 챙겨오는 것을 추천함
- 곳곳에 허름한 안내판 즐비
- 펜션 관계자들의 지나친 투어 강요

[자연환경 · 경관 중심, 짧은 체류기간] 주로 1박2일 일정 / 자연환경과 경관 중심

주요 참여 활동

휴식 및 휴양, 자연 풍경 감상이 주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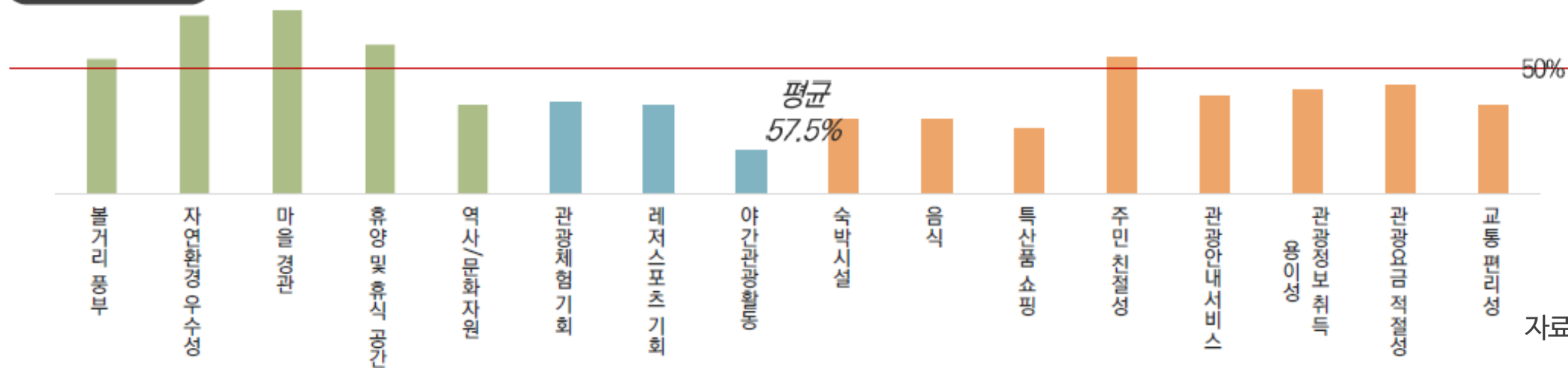


여행 기간

1박 2일(54%), 2박 3일(25%), 당일(16%), 3박 4일(3%), 4박 이상(2.2%)

관광만족도

자연환경과 경관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 ↔ 관광 활동 기회, 관광수용태세에 대한 불만족 표시



➡ **섬마다 테마를 강조**한 관광홍보 및 HW/SW 확충

➡ **수용태세 개선**을 통한 이용 장벽 낮추기

강점	인천 섬에 담긴 콘텐츠와 자원	약점	지역 인지도, 관광수용태세 개선 시급
	· 다양한 지역콘텐츠 보유 · 자연경관 및 생태, 해변 휴양, 숲길 등 풍부 - 지질공원, 트레킹/백패킹 등 에코레저수요 유입 · 안보, 종교, 섬 생활문화, 농수산물 특산물 등 인문자원 보유 · 다양한 테마의 관광코스 개발 용이 등		· 집객자원 부족, 주요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필요 · 한정적인 선박 수용력에 교통접근성 의존 - 입출도 불편 · 높은 여객선 요금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어려움 · 숙박, 식음 서비스 미흡, 관광서비스 거점 발달 부족 ·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사업시설 운영관리 어려움 등
기회	풍부한 도시 여가시장	위협	수요자 유인력 & 경쟁 우위 확보 필요
	· 인천시와 수도권의 풍부한 여가시장 인접 · 인천시 섬 관광개발 관심 확대 (섬발전지원센터 설치 등) · 백령 공항 등 접근성 개선 전망 · 어촌뉴딜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추진 등		· 주변 정세에 민감 · 지속적인 남북한의 관계 부투명 · 타 지자체 도서지역 적극적 개발/홍보 ·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해변 이용객 감소 · 젊은 여행자들의 낮은 관심 등

➡ **도시민 자연휴양/해양치유 등 수요** 적극 겨냥

➡ **공공기반시설 확충+민간투자 유치** 적극 추진

- 황해권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
- 스토리텔링 시대, 고유하고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곳
- 해양경관, 자연생태, 문화, 역사, 안보, 생활문화 등 신비한 섬 자원을 보유한 곳
- 남북관광 황해권의 시작점이자 중심이 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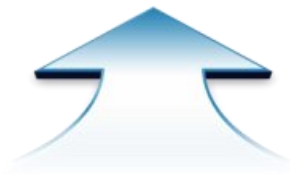
자연 · 사람 · 문화가 공존하는 도서지역 창출!

Ocean Gallery !

섬 지역성 부각
지역적 콘텐츠 활용
지역 산업과 연계
섬 자원간/섬 간 연계협력

섬 매력성 강화
다양한 테마와 컨셉
해양경관, 해양치유 특화
차별화된 프로그램 발굴

섬 정주성 강화
생활관광 활성화
체류형 관광시스템 구축
소득 창출 기반 마련



인천 도서특성화 사업 추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